

“4·3 유적 보존 시스템 시급”

도의회, ‘제주4·3 유적지 지속 관리’ 정책 토론회 “급속 개발 따른 훼손과 자연·인위적 훼손 가속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주4·3유적지임에도 사유재산권 행사,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소실돼가고 있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누리 포럼(대표 강민철)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계 부처와 학계, 종교계, 언론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사문화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제주4·3유적지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해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

원은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기초 및 역사적 가치’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4·3유적지는 842곳으로 파악됐지만 그중 재조사를 통해 제외된 6곳과 통합 8곳, 소실 26곳을 제외하면 현재 802곳만 형태가 남아있다. 또 대부분의 현장들은 기초 조사만 이뤄져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없이 보존과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급속한 개발과 자연·인위적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와 보존·활용 계획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토론회로 참석한 오승국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은 “4·3유적지를 보면 잃어버린 마을이 중요한데, 대개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가 어

렵다”고 말했다.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은 “문화재 규모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며, 소재의 분명성과 소유주 확인 및 등재 의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가 등록문화재 등재를 반대할 경우 설득시킬 방안까지도 지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지역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4·3 유적 보존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4·3 유적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4·3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해 사유지 매입 또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는 하나, 토지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등 토지매입의 한계 및 사유재산권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훼손·소실돼가고 있는 유적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을 바다 즐기기 좋은 무지개해안도로 28일 제주도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에 초가을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탐라문화광장 ‘노상술판’ 손본다

자치경찰 현장 근무인력 증원 무질서 단속 음주 단속 근거 마련 추진... “무관용 대응”

제주시 동문재시장 인근 탐라문화광장에서 이른바 ‘노상 술판’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자치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탐라문화광장에선 노상 음주 행위, 노상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일 첫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자치경찰은 현장 근무인력을 증원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음주정정지역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상 벌칙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간 주 1회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해선 알코올중독치료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 의지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자활 지원도 제공한다.

강다혜기자

개물림 사고 매년 80건 목줄 미착용 원인 가장 많아

제주에서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소방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43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2건 ▷2017년 92건 ▷2018년 78건 ▷2019년 87건 ▷지난해 92건이다.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 등 보호자 관리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사고방지를 위해 도 사건과 로트와일라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했지만, 중·대형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몸무게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민성기자

중고냉장고서 발견된 1억여원 주인은? 경찰 유통경로 역추적... 사망한 60대女

냉장고 구입한 도민 신고 경찰 “사망자 보험금과 재산처분 대금으로 확인”

지난 8월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한 달반여만에 돈 주인을 찾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이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치냉장고에서 현금봉치가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 냉장고 바닥에 붙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에 나섰다.

당시 신고자는 50대 제주도민 A씨로,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분실자를 찾기 위해 냉장고 유통경로 등 추적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5만원권 2200장이

붙어있던 중고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며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냉장고를 B씨가 구입하면서 현금도 같이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씨 메모와 사망하기전 남겨진 필적을 비교, 국과수에서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냉장고 사진 모델과 유족이 찍어온 냉장고 사진이 일치하는 점, 현금 봉투에 적힌 A씨 병원 퇴원일자 와 실제 퇴원일자 동일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금의 출처가 A씨의 보험금과 재산 처분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이 주인을 찾지 못했으면 현금 유실물 법에 따라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인 B씨에게 지급될 예정이



현금 1억여원이 발견된 냉장고(사진 위)와 5만원짜리 현금 봉치.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었지만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고인의 재산이 유족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됐다.

한편 현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돼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올 가을 한라산 단풍 11월 4일 절정

올 가을 단풍은 한라산(1100도로)의 경우 11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산림 18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7개 지역의 가을 단풍 절정 시점을 발표했다. 제주의 경우는 한라

산 1100도로와 교래곶자왓, 한라수목원이 포함됐다.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제주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월 하순경으로 예상됐다.

한라산(1100도로)은 11월 4일(±4일) 전후로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윤형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2021 온·오프라인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2021.10.5.(화) ~ 10.22.(금)

참여대상 도민 누구나 참여가능!	주요일정 *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5
사전등록 기간 21.09.27(월)~10.4.(월) 방법 홈페이지 및 QR코드 이용 회원가입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간 10.5.화~10.22.금 10.18.월~10.22.금 내용 회원가입/구직 신청 구직 신청/컨설팅 장소 홈페이지 제주고용센터 5층	
EVNET	구분 도민이벤트 행복이벤트 취업이벤트 대상 회원가입자 오프라인 행사 방문자 채용지원서류 제출자	

www.jejudreamjob.net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JTP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제주한라대학교 LINC+사업단 후원 (사)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제주은행